

2022년 정보공개 수요분석 결과 보고

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수요분석을 통하여
향후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

I 관련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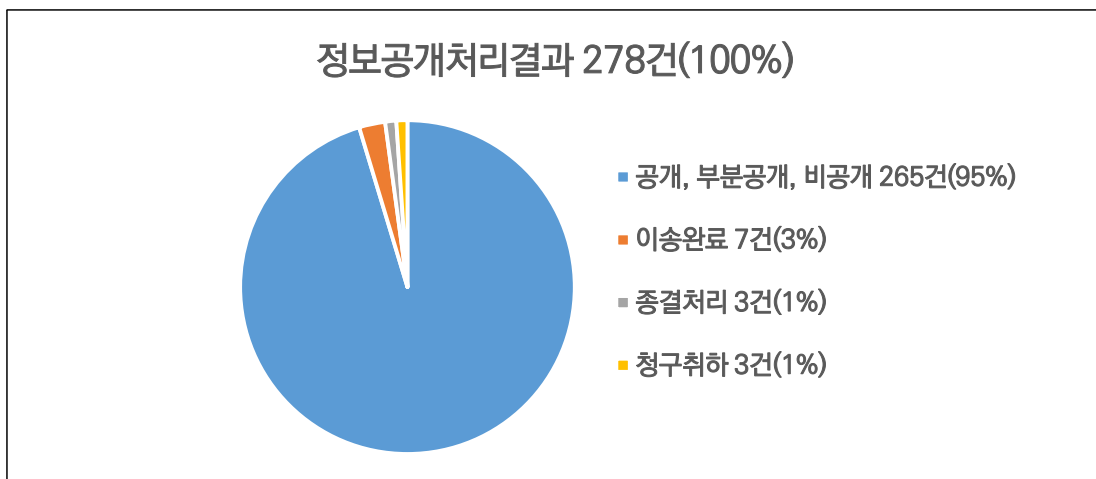
-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-2204(2022.04.20.) 「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 안내」

II 배경 및 목적

-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고객의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.
- 정보공개 관련 업무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, 기한 내 처리, 비공개 세부기준 안내 등 행정안전부의 시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.

III 분석 개요

1. 대상기간 : 2021. 01. 01. ~ 12. 31.
2. 대상분야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청구된 모든 정보
3. 총 건 수 : 청구 건수 278건 (정보 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



- 청구 건수 278건 중 정보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 결정 건은 265건으로 전체의 95%를 차지함.
- 전체 정보공개의 1%를 차지하는 ‘종결 처리’의 경우, 정보부존재 통지 안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청구하여 내부 종결 처리 한 사안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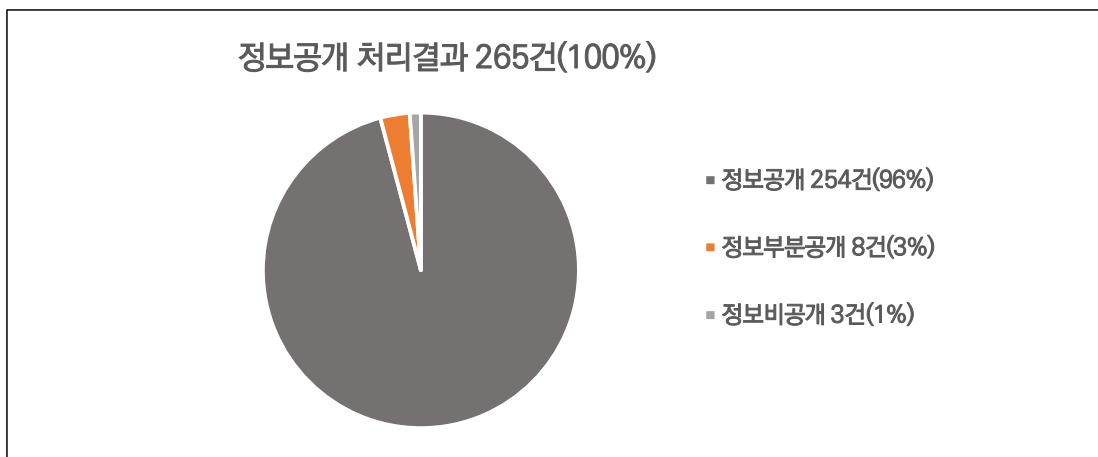
Ⅲ 분석 개요

1. 월 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

월	총합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건수	278건	13건	8건	11건	13건	7건	18건	58건	12건	17건	21건	44건	56건
비율	100%	5%	3%	4%	5%	3%	6%	21%	4%	6%	8%	16%	2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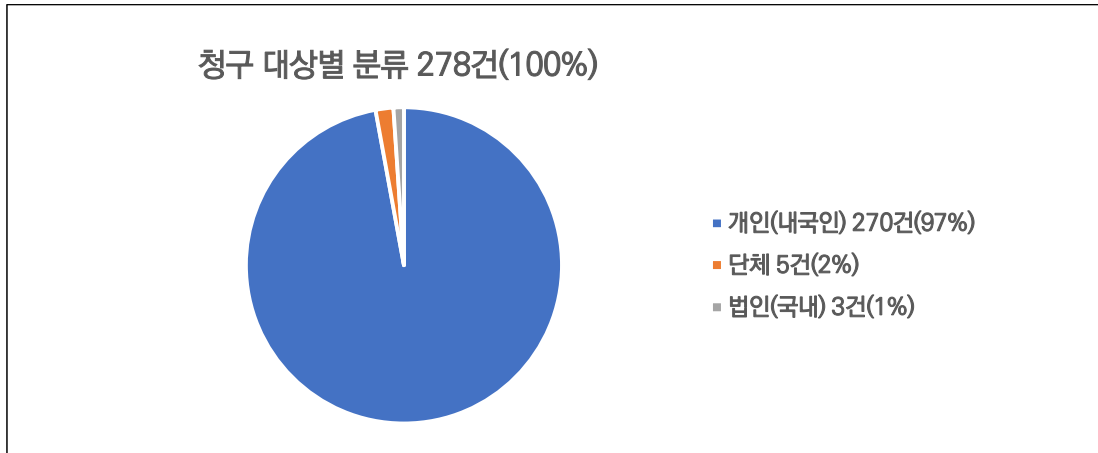
- 월 별 정보공개 청구 현황은 7월 5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, 8월 이후 정보공개 청구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11월에 44건으로 증가함.

2. 결정 정보 상태별 분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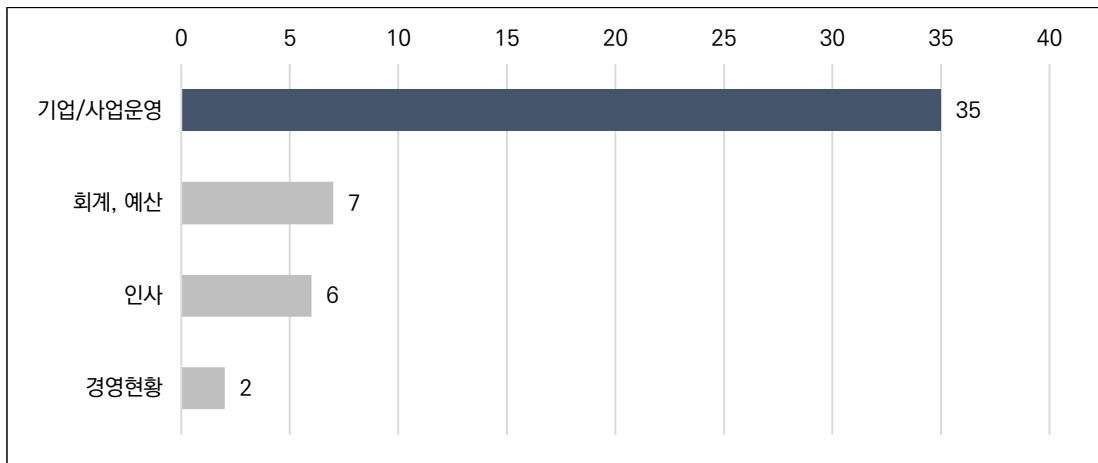
- 정보 부분공개·비공개 결정 건수는 총 11건(4%)로 집계됨.
-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,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으로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부분공개·비공개 처리함.

3. 청구 대상별 분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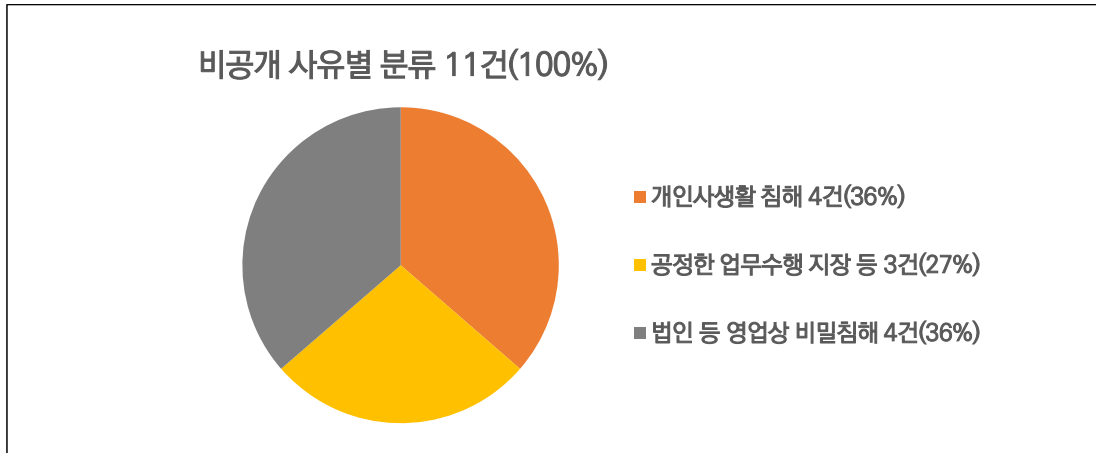
- 정보공개 청구 278건 중 개인(내국인)의 정보공개 청구 비율은 270건(97%)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, 단체 청구는 5건(2%), 국내 법인 청구는 3건(1%)으로 집계됨.

4. 정보공개 결정 건의 내용별 분류



- 정보 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 결정 정보 50건 중 가장 많이 청구된 분야는 ‘기업/사업운영’이며, 사업 수행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, 지원사업의 우수사례 등의 정보가 청구됨.
- 그 다음으로 ‘회계, 예산’ (사회 공헌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 기부금 사용내역, 예산 집행 현황, 홍보예산 집행 현황 등), ‘인사’ (기관 내 육아휴직 관련 제도 현황, 채용형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 수 등), ‘경영현황’ (기관장 임명 현황, 이사회 운영 현황 등)의 정보 공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5. 비공개 사유



- 정보 비공개 청구 11건 중 개인사생활 침해와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건수는 각 4건(각 36%),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3건(27%)의 이유로 비공개 처리함.

6. 결론

-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공개율은 94%(전체 청구 건수 278건 중 정보 공개 또는 부분 공개 262건)로 높은 공개율을 유지하고 있으며,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담팀을 지정하여, 공개 정보의 충실도, 최신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.
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전담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잘 관리되고 있음
- 대국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전정보공표 조회수 분석,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함.